



해외

WORLD

“달라이 라마 중심으로 뭉칠 것”

티베트 망명정부와 중국정부 회동... 2002년 이래 아홉 번째

달라이 라마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던 게리 로디(Mr. Gyari Lodoe), 칼상 갈첸(Mr. Kalsang Gyaltsen) 등 민간 대표단이 특별한 성과 없이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로 귀환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2월 2일 기자회견에서 “1월 26-31일 중국에 보내진 달라이 라마의 비공개 특사가 1일 다람살라로 귀환했다. 티베트-중국 정부간 회담은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번 양국 정부간 회동은 1980년 처음 시작됐다. 1984년 이후 결렬되다가 2002년 재교섭을 시작한 이후 아홉 번째 회동이다.

같은 날 중국행정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티베트 망명정부와의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부 차관 쉘첸(Zhu Wenqin)은 “중국은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인의 복리를 위해 항상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중국-티베트간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는 티베트가 아무 조건 없이 중국 정부가 마련한 협상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항상 중국이 출산해 양국 간의 교섭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중국정부 지도부는 “티베트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해도 달라이 라마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진 티베트 유혈 사태 이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까지도 중국은 티베트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아야 했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의 복리를 강조하며 대화를 요청하는 것에 티베트 망명정부의 입장은 비관적이었다.

티베트 망명정부 특사인 게리 로디는 “티베트-중국간 근본적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망명정부 비공개 특사단이 중국정부의 회동 결과를 밝히고 있다.

인 문제에 대해 중국지도부의 대화를 나눴지만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게리 로디는 “중국의 주권, 영토보존, 헌법을 비롯해 중국 중앙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편향된 사고가 양국의 대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는 상호 이익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달라이 라마의 무조건적인 협력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대승적 중도(中道)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는 티베

트인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자유의 구현”이라며 “티베트인 모두가 겪는 고난의 해결 방안으로 특정한 권이나 티베트 망명정부에 대한 지분을 강조하고 이를 협상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티베트-중국, 양국 간의 주요 입장 차이는 극명하다. 다행히도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티베트망명정부는 실제상황을 직관하는 중도적인 시각으로 중국 정부와의 갈등을 순차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도 다람살라=기연숙 객원기자

Mr. 해피니스 스님과 합합을...

일본의 스님이 젊은이들을 위한 포교수단으로 힙합음악을 이용해 눈길을 끈다.

CNN은 2월 2일 법당에서 젊은이들과 힙합, 랩음악을 공연하는 일본 사찰을 소개했다.

청년층 포교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 곳은 400년이나 된 전통사찰 큐지 절. 이곳에 있는 칸쇼 타가이 스님은 열불대신 랩을 외우기 시작한다.

미스터 해피니스(Mr. Happiness)로 불리우기를 더 좋아 하는 스님의 영문 이름을 'Kansho Tagai'를 실제 유튜브

(youtube.com)에 검색해보니 직접 법당에서 개조한 가사를 입고 공연을 한다.

현재 일본에는 7만5000여개의 사찰이 있지만 매년 수백 개의 사찰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스님은 힙합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인기가 좋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예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타가이 스님은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 불교를 젊은이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 방식이 새롭더라도 불교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설맞이 복지관 행사 ‘풍성’

어려운 이웃 위한 행사 다채... 공동차레에서 선물나눔까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는 짧은 설 연휴 탓에 친지·가족을 볼 시간도 부족하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결혼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주위의 이웃들은 올해 같은 설 연휴가 더 무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입춘이 지났지만 설 연휴까지 환파가 지속된다. 기상청의 예보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춥게 만든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인 설에 불교계 복지관마다 이웃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 02-6911-9555)는 2월 11일 센터 내 3층 강당에서 설 공동차레네기 행사를 마련한다. 설 공동차레 지내기는 고향에 가지 못하거나 직접 차레를 준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센터는 중앙공원에 위치한 제기차기·무호 등 전통놀이 체험마당과 설맞이 어르신 장기자랑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가섭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명절의 기쁨을 서로 나누며, 반박이 갖는 새해를 기원하는 공동체 화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02-742-9500)은 8-12일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홀로 어르신과 저소득 어르신 400세대에 설맞이 미소나눔 행사 ‘까치까지 설날’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KT사랑의봉사단, 교보생명, 다솜이봉사단, 풀빛문화연대가 어르신들을 위해 만두를 직접 빚어서 떡국선물세트로 진행하는 후원행사다.

서울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중성, 02-817-8052)은 10, 12일에 ‘설날맞이 해피타임 물품분출’ 행사를 열고 복지관 이용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떡국나누기를 실시한다. 복지관 관계자는 “복지관 후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불우이웃들이 물품을 전달 받을 수 있다. 불자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 02-915-9200)은 9일 설날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1부에는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떡국 무료배식을 실시하며 2부에는 북소리만들기·민속놀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송파노인복지센터(관장 장지선, 02-2202-3677)는 10일 기자동차 직원들과 함께 기초수급자인 독거어르신 80명에게 생필품과 떡국 세트를 직접 전달한다. 노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부산, 02-571-2988)은 11일 만두빚기 대회를 개최한다. 100여 저소득 어르신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두를 빚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해 상을 수여하며 사물놀이·난타공연 등 민속놀이도 진행한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노인, 031-919-8677)은 10-11일 담당자와 가정봉사원이 복지관 재가복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설 명절 선물인 떡국 떡 세트와 식혜 및 생필품 세트를 전달한다. 대상자는 본 복지관 재가복지 대상으로 선정된 40명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독거 어르신 및 부부 세대로 구성됐다.

군포매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연, 031-393-3677)은 9일 케파코 직원 30여 명과 지역내 저소득가정, 독거어르신 등 160 가정에 사과와 한과세트를 전달하고 어르신 집에 직접 방문해 안부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관장 경운, 032-667-0261)은 1-11일 관내에서 후원모금행사인 ‘사랑의 떡국

떡’을 실시해 모연한 금액으로 기초수급자들에게 명절선물을 지원한다.

부산물문대종합사회복지관(대표 이사 정권, 051-264-9033)은 6일 새터민 80세대와 함께 공동차레지내기를 실시했다. 10일에는 지역 독거어르신, 장애인, 조손세대가정 100세대에게 생필품 선물 세트와 떡국용 떡을 전달한다.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인철, 055-221-8445)은 10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 20세대에게 물품과 떡국세트 등을 전달한다.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홍, 051-231-8017)은 8-12일 생활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 결혼가정세대에서 사랑의 떡국 배달, 제세차려드리기 행사를 실시하며 제세물품 및 현금 후원을 받고 있다.

부산송호종합사회복지관(이사장 해충, 051-628-6737)은 10일 ‘설맞이 나눔한마당’을 개최해 지역 내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가정, 장애인세대 등 총 400세대에게 떡국거리·생필품 등을 전달한다.

이나은 기자 bohnyung@buddhapia.com

서울노인복지센터 재수탁 체결

가섭 스님 “개관 10년 새 시작 준비할 터”

노인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재수탁 협약이 체결돼 불교계 복지운영의 공신력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2월 2일 서울시와 재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3개년 운영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가섭 스님은 “서울노인복지센터도 개관 1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2010년은 그간 쌓아온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스님은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서울시가 설립하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우) 조계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복지관은 2001년 개관한 이래 9년 동안 인근 지역사회에 주체적이고 활기찬 신노년상을 제시하며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왔다.

가섭 스님은 “앞으로 자원의 보고, 문화의 중심, 사회참여 선도, 상담의 중심지로서 건강한 노인문화 발전과 주체적인 신노년상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수탁 과정에서는 서울복지재단이 2009년 12월 9-10일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사업과 회계 및 법인의 재정과 운영에 대해 서류 심사를 실시해 15일 재단 상임이사 및 기관장의 최종 면접 심사를 거쳐 재위탁을 확정했다. 이나은 기자

청각장애 남편 배웅하다 쓰러져

생명나눔 2월의 환우 이우순씨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월의 환우로 이우순(여·48)씨를 선정했다.

이우순씨는 2009년 12월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응급실에서 두 개골을 절개해 혈종을 제거했지만 아직 명확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 현재까지 1300만원의 치료비가 들었고 앞으로 20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이씨가 갑자기 쓰러진 날은 캄캄한 새벽 일터로 나가는 청각장애 환경미화원 남편의 아침을 챙겨주려고 했던 날이었다.

이씨의 갑작스런 발병에 대학진

학을 앞뒀던 큰 딸은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어머니를 간병 중이다. 둘째딸도 근로장학생으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 부담이 워낙 커 2학년 진학이 어려운 것 같아 고 고민이다.

청각장애를 가진 아빠와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겨온 두 딸의 울겨울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0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2월의 환우로 선정된 이우순씨.

부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상담가 2010학년도 불교상담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경은 방대한 상담사례집,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가

“불교상담대학·대학원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인가 2년제 특수교육기관으로, 불교의 기본소양과 상담심리분야의 전문능력을 두루 겸비한 불교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부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상담가의 원력을 세우신 분들을 모집합니다.”

불교상담대학장 담교 스님

☐ 불교상담심리사관?

불교상담심리사는 개인 또는 집단의 생활 및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에서 자격을 인정하고 불교상담개발원에서 그 자격을 관리하는 불교상담심리전문가, 불교상담심사 1급, 불교상담심사 2급을 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요망)

불교상담대학·대학원 원서문의 및 접수

조계사 교육관 4층 불교상담개발원

☎ 02)737-7378, 8803 FAX 02)737-8802

www.jabi24.org에서 불교상담개발원 검색

* 접수마감 : 2010년 2월 말까지 *

불교상담대학

- #### ■ 교육일정
- 개 강 : 2010년 3월 10일 수요일
 - 교육기간 : 2년제 4학기
 - 교육시간 : 매주 수, 목 저녁 6시 30분 ~ 9시 40분
 - 모집정원 : 40명 내외

■ 불교상담대학 교과과정

1학기 불교교리(필수)	불교역사(필수)	심리학개론	상담심리학개론
2학기 불교상담(필수)	발달심리학	집단상담	전화상담실습
3학기 경전의 이해(필수)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사이버상담실습
4학기 불교심리학(필수)	학습심리학	적응심리학	면접상담실습

- #### ■ 입시요강 및 접수일정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수를 이수한 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접수기간 : 2010년 2월 말까지
 - 입 학 금 : 2만원
 - 등 록 금 : 45만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501-04-144452 (예금주 : 불교상담개발원)

- #### ※ 교육비 할인대상
- 자비의전화 상담원, 포교사 등 종단 포교자격을 갖춘 군부사
 - 종무원, 협력단체 및 사찰 직원, 동국대 불교대학생
 - 조계종단 스님 및 이사 사찰 신도
 - 본원 이사사찰 수행상담실 상담원

- #### ☐ 불교상담대학 졸업특전
- 불교상담심사 2급 응시자격 부여(대한불교조계종 신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함)
 - 자격증 소지자는 교계최초의 전문상담기관인 ‘사자비의전화’의 각 상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전화상담실, 사이버상담실, 청소년사이버상담실, 면접상담실)
 - 시단법인 자비의전화의 법인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각종 워크숍 및 행사에 참가

불교상담대학원

- #### ■ 교육일정
- 개 강 : 2010년 3월 12일 금요일
 - 교육기간 : 2년제 4학기
 - 교육시간 : 매주 금요일 9시 30분 ~ 17시 30분까지
 - 모집정원 : 30명 내외

■ 불교상담대학원 교과과정

1학기 초기불교 수행과 상담(필수)	대승불교 수행과 상담(필수)	성격심리학 상담 및 심리치료
2학기 불경과 상담	자아초월심리학과 불교상담	정신역동상담 고급집단상담
3학기 유식학과 상담	수행 실천 인지행동치료	대상별 상담
4학기 명상과 심리치료	특수분야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상담사례연구 및 지도(사례발표/슈퍼비전)

- #### ■ 입시요강 및 접수일정
- 입학자격 : 1. 본 대학의 대학 과정을 이수한 자
 - 2. 정규 대학 과정 이상, 또는 상담관련학을 전공하여 졸업을 하거나 졸업예정인 자
 - 3. 종단에서 인가한 불교교육기관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로 필수과목을 별도 이수해야 함
 - 4. 불교상담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5. 타 교육기관에서 본교 개설과목 가운데 일부를 이수한 경우, 나머지 과목에 대한 과목별 수강이 가능함.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접수기간 : 2010년 2월 말까지
- 입 학 금 : 3만원
- 등 록 금 : 65만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501-04-144452 (예금주 : 불교상담개발원)

☐ 불교상담대학원 졸업특전

- 1. 불교상담심사 1급 응시자격 부여
- 2. 자격증 소지자는 심리평가 및 불교적 심리상담 가능
- 3. 자격증 소지자는 불교상담에 관한 연구가능
- 4. 자격증 소지자는 교계 내외의 상담 행정업무 가능
- 5. 자격증 소지자는 불교상담심사 1급 및 2급 수련중인 자에 대한 멘토링 가능